



## 우리가 만난 이주민 TALK <서로 다른 문화, 이해가 필요해요.>

전통습관이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명절 때 시아버지가 나보고 집안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때 내가 임신을 했을 때인데 계속 일했어요. 다 끝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좀 쉬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된다고 시아버지가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큰형님 눈치 보고 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명절에 다 남자가 해요. 오히려 여자들은 일 년 동안 고생했다고 쉬라고 해요. 명절에 여자들은 예쁜 옷 입고 놀아요. 이런 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청소일을 하고 있어요. 동료로는 한국인도 있고 몽골인들도 함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답하기도 하지만 피하기도 하고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것을 물어봐요. 불편해요. 무서워서 한국에 가족이 보호자로 같이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한국어 교재 중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다 있지만, 스페인어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혼자 공부 할 수가 없었고 일하느라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국어는 쓰는 것과 발음이 달라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페루에서 했던 말은 안 그래요. 그냥 읽는 거랑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게 어려워요.

"느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틀리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잠시만 우리 이주민 이웃에게 귀 기울이고  
바라봐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알아주세요."

### 신부님 글

#### 몸이 아픈 이들의 외침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사람들은 벌써 성탄을 준비합니다. 거리의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은 축제를 시작했지만, 반대로 어려움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주사목위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집 나와 아프면 서럽다.'고 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따뜻함을 느껴야 하지만,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혼자 아픔을 참아내며 살아야 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많이 찾는 시기를 보면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사고를 봐도 계절이 바뀔 때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을 설레게도 하지만 긴장이 풀어져 쉽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항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뜨거운 태양은 우리를 벗게 만들고, 매서운 추위는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기차 레일과 레일을 연결할 때 간격을 두거나, 다리 상판과 상판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도 계절 변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벌겠다는 강한 마음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의 요구는 어쩌면 건강 악화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보험조차 들 수 없고, 내국인보다 3~4배 많은 치료비는 그들을 세상의 끝자리로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도움을 청해 보아도 도와줄 곳을 찾지 못해 아픈 이들이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주민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의 병원비가 너무 많아 다 도와주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세금을 갚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려고 할 때 추운 겨울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이 사회 안에 어둡고 힘든 곳에서 빛으로 밝혀집니다. 후원자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식\*

9월 24일(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를 주제로 기념 미사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필리핀·베트남·남미·몽골·인도네시아·프랑스 공동체가 미사 전례와 성가를 각각 준비하여 다양한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1,000여명의 여러 나라 신자들이 참석하여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는 전통문화체험과 인식개선, 플리마켓, 이주민 공연, 그리고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법률상담 등의 행사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민족 공동체 봉사자들과 한국인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필리핀 공동체 소식\*

필리핀 공동체는 1992년 한국에서 거주, 노동을 하는 필리핀인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창립 31주년으로 10월 1일(일) 마로니에공원에서 기념 행사와 콘서트를 열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애써주시는 닐로 신부님(필리핀 공동체 담당 사제, 필리핀외방선교회)과 필리핀공동체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신자들이 타국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혜화동성당에서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필리핀 신자들이 타갈로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민 공동체를 이웃으로 여기고 미사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는 혜화동 성당에 늘 감사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공동체 소식\*



10월 8일(일)~9일(월) 5년 만에 인도네시아 공동체 피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천안, 대전에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게 보낸 시간들을 나누며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들으며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다 함께 모일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베트남 공동체 소식\*



10월 29일(일) 250명의 베트남 공동체 신자들이 해미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수원, 인천 교구의 베트남 공동체 신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700여 명이 모두 모여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고 성지를 둘러보며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교구 신자들과 만나 기도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성지순례를 보내고 왔습니다.

###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한국어수업〉



〈소방대피훈련〉



〈한약성곽 산책하기〉

### 공지사항 -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입금하신 후원금을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2024년 1월 둘째 주에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괄 발송 전 기부금영수증을 먼저 받으시려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 : 02-924-9970/1)

### 후원미사 안내\*

문의 / 02.924.9970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구유지재단
-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구유지재단